

(3) 청동기류

전남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는 초기의 비파형동검계 유물과 후기의 한국식동검계 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 비파형동검계의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비파형동모·청동촉·거친무늬거울 등이 있으며, 한국식동검계 유물로는 한국식동검·잔무늬거울·청동껴창·청동투겁창·동사·동부·동착·동령구 그리고 중국식동검·칼자루끝장식과 거푸집 등이 있다.

① 비파형동검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여천시 적량동에서 7점, 여천시 봉계동과 평여동에서 각 1점씩, 여수시 오림동에서 2점, 고흥 운대리에서 1점, 송광면 우산리 내우에서 2점, 보성 덕치리에서 1점 등 보성강 유역과 남해안지역에서만 15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여수반도인 여천시와 여수시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밀집분포되어 있어 청동기문화 연구의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비파형동검은 모두 고인돌 출토품이며, 적량동 7호 고인돌과 2호 석곽을 제외하고는 파손품이거나 2차 가공품들이고, 경부에 흠이 있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의 형식에 대해 이영문은 전형과 변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 3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전형비파형동검 : 등대 단면이 풍만한 하단부에서 원형이나 타원형을 이루나 상단부에서는 사각형에 가까운 6각형으로 변화되고, 뚜렷한 돌기부에서 최대 두께를 형성하는 형식

┌전형 I 식 : 검신의 상·하단부의 단면이 각각 6각형과 타원형으로 다르고, 돌기부의 등대가

 용기되어 있으며, 검신의 곡인 윤곽이 뚜렷한 형식

┌전형 I a 식 : 경부에 흠이 없는 형식(경북 청도 예전동식)

└전형 I b 식 : 경부에 흠이 있는 형식(충남 부여 송국리식)

└전형 II 식 : 전형 I 식과 같은 등대 단면과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검신이 짧고 검신 하단부 최대

 폭이 더 좁아진 형식(황해 금곡동식)

└전형 III 식 : 전형 I 식과 같은 용기부가 형성되어 있고 등대 단면과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보다 돌기부가 퇴화되고 검 길이가 짧고 하단부 폭이 좁아진 형식

변형비파형동검 : 전형에 비해 돌기부가 퇴화되어 희미해지고 용기부가 소멸되거나 흔적만 남아 있어 전형과 뚜렷이 구분되며, 하단부의 만곡도가 완만해져서 전체적으로 세형으로 되어 가는 형식

┌변형 I 식 : 검신이 전체적으로 세장한 감을 주나 하단부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팽배해

 있고, 희미하나마 돌기부가 형성되어 있어 비파형동검의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형식(개천 용흥리식)

└변형 II 식 : 검신 하단이 거의 직각에 가깝게 경부와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하단부가 밀으

로 치

- 진 듯한 긴 삼각형 모양이며, 용기부가 소멸되고 돌기부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 있는 형식(신평 선암리식)
- 변형Ⅲ식 : 겹신이 직인으로 되어 가고 봉부가 예리하지 않으며, 돌기부도 희미해져서 전체
- 적인 형태가 한국식동검과 유사한 형식(평양 서포동 · 영덕 사천동식)
- 이형식 : 겹신이 직인으로 된 것으로, 비파형동검의 요소가 소멸된 형식(재령 고산리식)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은 이형인 보성 덕치리와 여천시 평여동 출토품을 제외하고 모두 전형 I b식에 속한다. 동검의 형식과 출토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데, 전형 I a식은 경북 청도에서만, 전형 I b식은 서남부와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여 전형 I 식들은 모두 한강 이남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전형 II · Ⅲ식은 한강 유역에서, 변형들은 한강과 그 이북에서 발견되고 있다.

비파형동검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지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요령지역의 동검과 형태상 통하는 것이 전형 I · Ⅲ식과 변형 I 식이다. 이외의 형식과 전형 중 흠 있는 전형 I b식은 한반도에서만 보이는 형식이어서 한반도 내에서 자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제작되거나 재가공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② 비파형동모

비파형동모는 경부 대신에 공부가 달려 있는 것인데,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길림 장춘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요서지역에서도 공부가 있는 것이 있지만 공부에 파인 구멍이 짧고 단면이 능형이어서 단검으로 보고 곡인공병식단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동투겁창으로 분류된 것들은 인부가 버들잎형이고 공부의 측면에 환이(環耳)가 달려 구멍이 뚫린 비파형동모와는 모신의 형태와 착상법에 큰 차이가 있다.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비파형동모는 여천시 적량동 2호 석곽에서 비파형동검 1점, 소형대롱옥 5점과 공반된 1점 그리고 보성 봉릉리 고인돌에서 T자형 칼자루끝장식과 공반된 1점 등 2점이 있다. 이들 유적은 우리나라의 출토유구와 공반관계를 알 수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③ 청동촉

청동촉은 보성 덕치리 고인돌에서 간돌검 1점, 간화살촉 29점과 공반된 1점이 있다. 이는 유경촉으로 혈구가 있는 유경양익촉이지만 이단경식촉보다는 늦은 시기의 것이어서 비파형동검문화 후기단계의 유물로 생각된다. 이 동촉은 원래 동촉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동검의 일부를 재가공한 2차 전용품인데, 간돌검과 간화살촉이 공반관계를 이루어 초기청동기 연구의 자료로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④ 거친무늬거울

거친무늬거울은 고흥 소록도에서 적색원저호 1점, 돌도끼 1점, 삼각형간화살촉 6점과 공반된 1점이 있다. 이 거친무늬거울은 한국식동검과 공반된 잔무늬거울의 조형으로 비파형동검문화에서 한국식동검 초기 문화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거친무늬거울이 요령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과 공반된 예가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 없고 한국식동검의 초기 유적인 대전 괴정

동이나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등에서 한국식동검과 공반되고 있다.

⑤ 한국식동검(세형동검)

한국식동검은 유적을 알 수 있는 화순 대곡리 석관묘에서 3점, 함평 초포리 석관묘에서 4점, 영암 장천리 고인돌에서 편 1점, 승주읍 평중리 고인돌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출토유구나 출토지가 불분명한 장성 북이면, 광주 유덕동, 나주 청송리, 화순 절산리, 보성 강상리에서 각각 1점씩 모두 14점인데 이외에 목포와 영암 출토품도 있다. 그러나 이 유물 중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영암 장천리만이 유구가 확인되었고 그 나머지는 신고된 것의 전언이나 현지조사 때 확인한 것들이어서 그 자료적인 가치는 떨어진다.

한국식동검이 출토된 지역들은 전언(傳言)을 통해 알려진 화순 절산리(보성강)와 보성 강상리(남해안) 그리고 승주읍 평중리를 제외하고 모두 영산강 유역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입부 이하에 등날이 없고 인부와 기부가 등글어 비파형동검의 전통을 이은 I식 한국식동검은 승주읍 평중리와 영암 장천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것이 있으며,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에서 등날이 결입부 이하에 미치는 II식 한국식동검과 공반된 것이 있다. 특히 승주읍 평중리 고인돌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검은 등날이 결입부에 못 미치고 형태도 다르며, 결입부도 뚜렷하지 않고 기저부가 호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한국식동검과 차이가 있다.